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5호 [루게 제24718호] 주체103(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승오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룡군중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강기섭동지, 림광웅동지를 비롯한 민용항공총국과 설계부문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7월 건설중에 있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항공역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일떠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일념을 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2항공역사와 방대한 규모의 활주로, 유도도로, 정류장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반에 2항공역사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출발수속률, 대기효율을 비롯한 내부형성에서 편향이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봉사망들과 시설물들이 역사공간과 조화를 이루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평양국제비행장 맞은편에 앞으로 새로운 항공역사와 활주로를 더 건설하고 수도중심으로부터 항공역까지 고속철도와 도로를 연결시켜 세계적인 비행장으로 전면시킬 구상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융장화하며서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순안일대를 현대적으로 일신시키는것과 함께 평양국제비행장과 가까운 순안구역의 농장별에 특색있는 온실들을 일떠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어리여있는 택암리와 원화리를 세계적인 표준농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개발에서 선후자를 바로 정

배치되지 못하였다고, 이대로 시공하면 어느 한 나라의 항공역사복사판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2항공역사마감시공에서 결함이 발로된것은 설계가들이 건축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는것이 생명이고 핵이라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깊이 새기지 못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우리의 맛,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2항공역사건설을 선군조선의 상징, 우리 나라의 얼굴, 평양의 판문답게 마감하며 려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도록 봉사망들과 시설물배치를 잘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내부마감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형성안들을 검토하여 다시 개작설계안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이 기본적으로 끝난 평양국제비행장 활주로를 돌아보시며 활주로포장정형과 각종 활주로표식들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활주로와 유도도로, 정류장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불만 없다고, 평판도 좋았다고, 국제항공안전규정에 부합되게 착륙조준표식, 착륙점지대표식, 활주로축선과 활주로방향표식 등 모든 활주로표식들을 잘하였으며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울퉁불퉁하던 활주로접근안전지대와 측방안전

지대정리를 흠잡을데없이 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득히 뻗어간 활주로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리용하시며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활주로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건설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활주로를 훌륭히 건설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남은 공사도 질적으로 잘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평양국제비행장지구모형사판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하는 문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는 문제, 착공시기와 로력과 자재보장대책문제 등 개발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과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마무리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개발을 직접 맡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받들어 모두가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줄 철강재생산성과 확대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을 추켜세우는데 필요한 철강재생산을 늘이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화력발전소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강봉과 철강생산실적이 지난 시기보다 크게 높아지고 금강소와 용접봉생산설비가 선행되었다. 100여의 소철레를 화력발전소 일군들에게 보내준데 이어 쇠바줄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 있어서 여러가지 압연장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활기있게 전개되고 있다.

귀대한 정도 자립정일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가 선후차를 가려 일관을 기동적으로 전개하면서 원료와 부원료보장을 따라세우고 있다.

굴지의 동력기지와 중요한 전들이 새차게 들끓어야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 각지 제철, 제강소의 로동자들이 치열한 생산돌격전을 벌려나가고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전진하는 대오의 앞에서 화신의 기관차가 되어 달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짜고두고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강판과 금강소재를 생산하였다.

하루 동발나무생산 1.5배 장성

림업성아래 각지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동발나무생산성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원회에 펼쳐나선 각지 갱목생산사업소의 투쟁에 의해 현재 림업성으로 매일 지난 시기의 1.5배에 달하는 동발나무가 생산되어나오고있는 속에 10월 25일까지 성적인 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의의 불바람을 새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선력을 최대로 발휘시켜야 합니다.》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철강재생산을 늘이고 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전진하는 대오의 앞에서 화신의 기관차가 되어 달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짜고두고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강판과 금강소재를 생산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을 함께 책임진 림장에서 치열한 생산돌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강철직장의 용해로들은 한차치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해 용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원료와 부원료장입방법을 받아들여 고고다. 압연공들은 공경간 맞물림을 잘하고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으로 생산실적을 높였다.

세계에 내다왔다.

서부지구의 림판들에 대한 동발나무부장을 맡은 평안남도림업관리국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이 새차게 타나지고 있다.

관리국적인 동발나무생산량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덕천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준비를 면밀히 갖추어 기초하여 산지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나무베기 및 나르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10월 16일까지 높이 세워진 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부창, 양덕, 대흥, 평화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계급도 집단적 사투리의 경쟁열풍을 세계 일각에 매일 계획의 2배이상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많은 량의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림판들에 보내주었다.

량강도, 자강도, 함경북도림업관리국에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동발나무생산에서 좋은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 량강도림업관리국 연암, 백암 갱목생산사업소들의 로동계급은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는 한편 림철기판차와 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간지제 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그 가동률을 훨씬 높임으로써 날마다 많은 량의 동발나무를 생산하고 있다.

자강도림업관리국 성간림산사업소와 강계갱목생산사업소, 함경남도림업관리국 홍천, 수동, 정령갱목생산사업소, 함경북도림업관리국 회령, 경원, 온성, 부령, 강성, 명간갱목생산사업소들 비롯한 많은 생산단위에서도 비약의 불바람을 세계 일각에 밀어붙여 10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해당 철도역들에 동발나무가 쌓이는데 맞게 성과 림업관리국, 사업소들의 일군들은 철도 운수부문의 편제를 긴밀히 하고 기관차,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림판들에 제때에 일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지난 10월 2, 8, 23 등 특정년 림판과 친선청년림판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1.5배, 1.7배에 달하는 동발나무가 들어간것을 비롯하여 순천, 덕천, 북창, 등각지구의 화력발전 생산단위들에 큰 1.4배에 달하는 동발나무가 보내졌다.

각지 갱목생산사업소의 양양원 열의와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동발나무 하루 갱목생산량은 1.5배로 늘어나는 등 생산성과 더불어 선진성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10달동안에 지난 한해생산량 돌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은 나라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새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뜻깊은 올해에 매달 세멘트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10월 28일까지 월 세멘트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것은 련합기업소적으로 지난 한해동인의 세멘트생산량을 넘어선 자랑스러운 성과가 기록된것으로 된다.

련합기업소에서 기록되고있는 이 혁신적성과는 격동하는 대고조시대에 세멘트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같은 혁명적열의가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재공정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건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 올해의 전투과정은 세멘트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길이 타나지는 격동의 나날로 자랑스럽게 흐르고 있다.

뜻깊은 올해에 세멘트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로동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높일 데 답하고 통이 큰 목표일에

5단계까지의 소성계열대보수공사를 행한것이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생산과 설비대보수전투과정에 앞장을 메고 대오를 이끄는 기관차로서의 견인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사업이 안받침된 속에 모든 당, 행정부서들과 보장부문의 일군들이 현장에서 나가 생산자들과 함께 혁신의 돌고리를 열기 위한 투쟁을 파장하게 벌려냈다.

기업소적으로 설비대보수전투가 단계별로 계속될 때마다 진행된 영화료모임과 우수한 단위들에게 대한 보여주기사업,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사업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은 련합기업소에 새로운 중산돌격전의 불길, 대중적혁신의 불길이 새차게 타올랐다.

소성직장과 크랭크수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높은 온도에서 기록되는 현장에서 철관교재와 가공을 비롯한 어려운 작업을 짧은 시간에 손색없이 해제하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보수직장의 연공들과 기업소안의 청년동맹동맹대원들은 높이가 수심만 되는 소성계열의 굴뚝에 올라가 보수공사와 도색작업을 손색없이 다그쳐 온 기업소에 세멘트생산의 열풍이 더욱 새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대보수전투의 나날에 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기업소적으로 설비대보수기일이 훨씬 줄어든 반면에 소성기 가동일수는 조어에 최고수준이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의 연간 세멘트생산량을 10개월동안에 돌파하고 6단계 설비대보수전투에 진입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건설의 대변영기를 더 높은 세멘트생산량과 담보한 신심도 집념으로 모는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을 남김없이 펼치고 있다.

조화련회직장과 석탄분쇄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원료와 연료공정을 지킴으로써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집체같은 분쇄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설비보수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자기들의 일터를 생산환경이 몰라보게 개선된 혁신의 풍을높은 단위로 변모시키는 자랑을 펼쳤다.

기본생산공정에 대한 단계의 설비보수전투때마다 공기일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줄어들었다.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집체같은 설비들의 부분들이 손색없이 제작완성되고 주강과 가공부문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 혁신이 일어나 종전에 여러달씩 걸리던 한 단계 소성계열설비들의 대보수전투때는 불과 20여일만에 수행되는 혁신이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 완성

희천 10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건설전투장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민중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려단지휘관들은 발전기실공사에 력량을 집중시키고 대대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면서 전투원들이 하부구조물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해나가기도록 조직정치사

업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우기 위하여 산악같이 펼쳐나선 개천철도국대대, 함흥철도국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공사에 착수한 첫날부터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원들과의 협동애가 굵은 판, 원추관조립을 앞세운데 맞게 콩크리트기공을 위한 림제천을 줄기치게 벌려냈다.

이들은 콩크리트타입이 많은 흙출토공사를 하루빨리 끝낼 목표에 앞선 흐름식타입을 짜고들었다.

수건물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다. 특히 개천철도국대대의 전투원들이 벼체타입과 총막부재조립속도를 부쩍 높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축소 및 부재조립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켰다.

이곳 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작업날개설, 회리설, 고정롤 등 하부설비들을 일식으로 들어얹고 기계적중심축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콩크리트기공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에서 대대마다 능률적인 혼합기를 갖추고 설비들이 도착하는속도와 밤이 닳지 않는 눈부신 전투를 벌려 매일 타임계획을 2배 이상으로 해제하였다.

하여 발전기실치를 위한 기초 콩크리트기공과 넓은 면적의 총막기공과도 불과 며칠동안에 해제하고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성하는 자랑을 펼쳤다.

지금 렬단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발전기실하부구조물건설에서 승리의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제길 기세로 높이 과안연계굴착과 콩크리트기공을 다그치면서 발전기실물축조공사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브라질리아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
틸마 바나 로우쎬프 각하

나는 최근에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귀국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의하여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또다시 지니게 되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총체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10월 28일 평양

우리가 안겨사는 따뜻한 품

◎ 옥류아동병원으로 보내여온 편지들을 읽고 ◎

리고 입원실마다에 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대같은 사랑에서 저는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라도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온 한물 받지 않고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나라는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저의 가슴속에는 이런 고마운 제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열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부부는 편지에서 이렇게 격정을 터뜨리셨다. 《우리 권이의 생명지표를 시간별로 측정해보면 침대에서 밤을 꼬박 새우던 이곳 의료일군들의 모습에서 저의 남이 아닌 친혈육의 정을 느껴왔습니다. 참으로 입원기간에 저희들은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신 화목한 대가족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태어난지 15일밖에 안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깊은 병원문을 두드렸던 한 로동자부부도 우리 당에서 키운 훌륭한 의료일군들의 의해 아들이 두번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편지에 썼다.

삼선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주민은 환자들을 위해 벌칙까지 마련해주던 병원책임일군들과 의료일군들의 다정한 인정에 대해 편지에 쓰면서 이것은 인민의 제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고마운 우리 보건제도가 세상이 제일이라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마을에 위치한 산골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날아온 편지들마다에는 자식들의 병을 마음껏 치료할수 있도록 훌륭한 아동병원을 세워준 우리 당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는 인민의 절절한 목소리가 그득히 실려 있었다.

심장혈관외과에 입원하여 마침내 심장병을 고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 매일 아침 당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출근한다는 산골농장의 편지는 눈물없는 읽을수 없는 인민의 정성이었다.

남포시 온천군에서 사는 어느 한 맹맹위원장은 이웃집의 딸이 선천성심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기뻐서 자식을 삼가 올리는 인민의 절절한 목소리가 그득히 실려 있었다.

《사실 은정이가 옥류아동병원에 간다고 할 때 그의 몸이 너무도 연약하고 병이 심하여 온 마을사람들이 저 에를 과연 다시 볼수 있을가 하고 우려했습니다. 은정이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학교길도 언제 한 번 단숨에 못 가고 진땀을 빼면서 가곤 하였습니니다.》

학교운동회날이면 마을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식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구경할 때 은정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동장 한구석에서 경기에 참가한 아이들을 부러워 눈길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니다.

이런 은정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옥류아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뛰놀고있는 모습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심장수술까지도 무료로 보장해주며 온 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우리 당에, 따뜻한 품!

정녕 우리 후대를 위한 일이 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시겠다는 현대적인 아동병원이 이 땅에서 우뚝 솟아났고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하늘 가득 더 높이 울려 퍼지는 것이니라.

한강장정의 편지를 읽어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진 훌륭한 병원에서 자식들이 마음껏 치료받을수 있게 해준 고마운 우리 당에 삼가 큰절을 드리는 심정으로, 어머니당의 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인민의 모습에 뜨겁게 안겨왔다.

본사기자 김옥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비아공화국 부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잠비아공화국 부대통령
가 이 스코트 각하

나는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인 마이클 칠루프야 씨라각하가 애석하게도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잠비아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오늘의 슬픔을 이겨내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10월 30일 평양

우리 당의 품에서 억세게 자라난 불굴의 시인

락랑구역 충성 1동에 살고있는 특유 영예군인 조광원동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문단에 재능있는 시인이 출현하였다.
6월 4일문학상, 조선문학추진상수상자인 조광원동무이다.
그의 시들은 사상에 예술성이 높고 시대적 호소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깊이 하고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특유영예군인 조광원동무에게는 두드러진 오름발이 없다. 하지만 그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시대의 가수, 힘있는 나팔수가 **나의 행군길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20년전 7월, 고요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한 인민군부대 군의소의 입원실에서 조광원동무는 원주력으로 침대를 팡팡 내리치며 소리내어 읊었다. 두달전 그는 군사업무수행중 달리는 열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명상을 당하였다.



조광원동무(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작가들

그가 한주일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두드러진 오름발이 없었다. 이제 웅얼인가, 내 다시는 열병대에 오서 두달을 구르며 보무당당히 나아갈수 없고 원수에 대한 증오로 서리받치는 자동보총의 방아쇠 당깁수 없단 말인가. 아버지처럼 한평생 인민군관으로서 부부하러던 소중한 꿈은 또 어떠한 말인가.

얼마후이면 관판학교에 가게 되어있었던 조광원동무는 억이 막혀 몸부림쳤다.
(아, 내 한평생 가리던 총잡은 병사의 길이 정녕 여기서 끝날것인가.)
어느날은 어깨가 소리가 떨어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팔다리뿐만아니라 바야흐로 활짝 꽃피우려던 아름다운 정춘의 꿈마저 잃은 그의 머리속에는 이제 더 살아 무엇하랴 하는 생각각자 있었다.
그런 속에서 조광원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겠다는 절절한 비보를 받아들인게 되었던것이다.
이 무슨 천형벽역인가! 그는 소스라치며 몸을 주저했다.
아버이수령님의 령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고있었다. 자기 손으로 추모의 꽃들을 송이송이 엮어 영생축원의 마음담아 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드리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의 천만자들이 낮에 밤을 이어 가고 또 가는 그 길을 정녕 갈수 없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한 슬픔을 링 링 입원실의 청상어에서 피라계 터질뿐.
그럴수록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민족의 대국상, 지구가 깨어진것 같은 그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신상의 불행은 높고있는것이 죄스러웠다.
스무해전 피눈물의 나날을 뒤돌아볼 때 우리 인민은 자신들이 정녕 참치러던 길을 갔던 뼈아픈 슬픔을 더디고 용감 일떠섰음을 가슴처럼 추억한다.
그 슬픔은 육체의 적지 않은 부분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병사 조광원을 일으켜세웠다.

(나에게는 아직 심장과 원발이 있다! 육체의 단 한 부분, 단 한개 세포라도 남아 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병사의 행군길을!
굳은 결심이 어린 그의 눈길에 울로 남은 원수에 가렸었다.
지금까지는 발출을 뜨는 일조차 서늘했지만 앞으로는 육체의 웅근 구실을 맡아야 할 귀중한 손이었다.
무엇을 할것인가?
그는 오랜 날을 두고 이 생각에 열중하였다.
군의소에서 병치료를 받은 1년간에 그가 한 생각들은 그때껏 살아온 스물한해의 생각을 합친것보다 더 깊고 깊었다.
그러나 고향집을 생각할 때 제면처럼 떠오르는것은 온몸수리품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낯은 없지만, 마른일 가지처럼 온 구역의 사람을 보는 어머니는 수도의 밤들고 고이 간직된 열매는 야간돌격대원이기도 하였다. 개신교와 주세사상들을 비롯하여 수도의 기념비적전투물들은 소박한 평양시민의 그의 어머니가 흘린 열정의 땅도 스며있었다.
그의 어머니 최환남녀성은 시를 몹시 사랑하였다. 때로 깊은 밤 하루공부를 마친 아들 광원이와 피근길을 걸을 때면 그는 고요한 동쪽길에 지나며 야간돌격대의 나날에 자기 지은 시들을 조용히 읊어주곤 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수많은 자작시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도 출판물에 낸적이 없었다.

당시상전선의 전열에서 억세게 자라났고있다.
과연 어떤 힘으로 그는 시창작과 더불어 숭고하고도 곱잡없는 생을 역력같이 이어가고있는가.
(나는 영원히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이다!)
이 하나의 생각으로 그의 심장은 불타고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꺾일줄 모르는 어제날 병사의 백절불굴의 의지가 고결한 삶의 맥박으로 새차게 울려오았다.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직하려는 병사의 투철한 신념, 시인의 불같은 열정, 혁명가의 억센 투지로 조광원동무는 위대한 혁명시대의 송가, 혁명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힘차게 찍어가고있다.

나의 행군길은 끝나지 않았다
다. 평정날 식구들앞서 읊어보이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러고나선 말하였다.《사람이 시처럼 살수 있겠는가.》...

정다운 모교에는 중학시절 조광원동무의 마을속에 조국의 모습으로 새겨진 훌륭한 담요고원이 있었고 교정에 심고 온 사랑화는 백양나무가 있었다. 그 담요고원앞에서, 백양나무앞에서 그는 맹세하지 않았던가. 영웅이 되어 돌아오리라.
여러해동안 정을 묻은 중에도 한생토록 잊지 못할 모습들이 있었다. 아전밤들의 밤을 함께 할 때면 몇줄 뜨다말고 먼저 일어서곤 하던 옛 분대장, 강령군을 이겨내야 진짜배기병사가 된다고 하면서 물집이 적힌 밤에 딱딱 도둑주고 군화끈도 바삭 조여 매주며 병사의 참된 걸음새를 가르쳐주던 지휘관들.
조광원동무는 쓰고싶었다. 그 모진것, 귀중한 조국과 잊지 못할 동지들에 대하여, 영원히 변함없을 병사의 보복에 대하여!
《간호원동무, 나에게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주세요!》
단호한 결심이 어린 그의 말은 간호원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린 새 삶의 출발명령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글씨편을 시작하였다. 우리 글을 처음 익히는 아이들마냥 한뼘, 두뼘 정성껏 써 나간 조광원동무, 침상에 엎드려 한팔과 한손으로 온몸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글을 쓰는 그의 모습은 마치 결경전의 육박전에 나선 인민군전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열걸음, 스무걸음을 거쳐 쓰여진 열마나 장의 긴내력과 의지를 소구하는 지체할수 없는 다짐은 다 알수 없을것이다. 그럴 때면 환풍기에 불이 당길듯 눈빛은 황

당은 **당시치고 어머니였다**
위대한 당의 선군평도에 의하여 다제단으로 변이 나는 내 조국의 벽한 하루하루는 조광원동무의 가슴을 새겨놓기 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동작을 내놓을 높은 목표를 안고 조광원동무는 시창작의 광활한 세계로 돌진해갔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사들을 옮겨베끼며 따르려고했던 생활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엮어 한자두자 써나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조는 생각처럼 잘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의 창작적욕망은 비상히 왕성하였지만 왼손에 쥔 연필은 종이우를 달리 다리고 자주 멈춰서곤 하였다.

어느날 아침 그는 무엇인가를 쓰다말고 창문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그의 눈가에 통일거리를 누비며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책가방을 든 대학생들도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마음속말이 흘러나왔다.
《나도 대학에 갔으면...》
배우고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주제문학론의 진수로부터 여러 이름난 시인들의 개성적인 창작수법이 이르기까지 인문문화사가 쌓아올린 거대한 문학유산은 한가치도 안 보고싶었다.
끓어오르는 욕망과 한계점에 다달은 능력의 불일치!
그것을 두고 가슴을 치는 특유영예군인의 속마음을 헤아려 따뜻이 보살펴준 품은 어머니였다.
영예군인인 그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부국당원회도 일군들도 있었다. 생활에서 부족함이 무엇인가고 그들이 따뜻한 물을 때마다 조광원동무는 말하였다.
《없습니다. 단지 문학공부를 하고싶을뿐입니다.》
그러부터 얼마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인 박현철, 신문경, 리창식동무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당조직의 위임을 받고 온것이였다.
신문과 잡지에서 이름을 익힌 시인들이 한꺼번에 세명씩이나 자기를 찾아온 사실에 조광원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고마운 우리 사회, 어머니 우리 당의 품속에서만 있을수 있는 가슴뜨거운 일이었다. 진지적이고 열정적인 그를 만나본 시인들은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두드러진 한팔이 없는 영예군인의 몸이지만 탁월적이고 자신심에 넘쳐있는 그에게서 시인들은 불가늠을 모르는 병사의 각오와 무한대한 힘을 느꼈던것이다.
《광원동무의 리상과 포부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껏 도웁시다.》
세 시인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한주에 한번씩 찾아와 창작지도를 해주었다.
광원동무에게는 매일 한편이상의 습작을 할때 대한 과제가 나왔다.
하루 시 한편 창작!
그것은 쉽지 않았다. 조광원동무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쓸것인가 하는

황 라린지고 온몸에는 구슬같은 땀이 한벌 뿜어내었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군의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은 조광원동무의 모습에서 전회의 나날 팔다리가 부서지자력으로 중기압축을 누른 조권실영웅의 모습, 수류탄을 입에 물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적으로 뛰어든 강영영웅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조광원동무는 단지 글씨편을 하는것이 아니었다. 두드리와 오르발이 없어도 병사의 길, 혁명의 길을 뜻없이 활개치며 나아갈 결사의 각오, 불굴의 의지, 억센 힘을 단련하고있었다.

절해고도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사조.
그것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병사 조광원동무가 선택한 불굴의 삶이었다.
백이온 슬픔과 피눈물을 불굴의 용기와 힘으로 바꾸고 일신상의 고통과 번민을 새로운 지향과 리상으로 이겨내며 그는 이렇게 일떠섰다.
조광원동무가 제대되던 날 전우들은 그의 배낭에 많은것을 넣어주었다.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기념품이며 성의껏 마련한 도중식사...
하지만 그의 가슴을 제일 울린것은 크지 않은 노래수첩이었다. 혁명가요, 전사가요, 선군시대 가요들이 적힌 노래수첩, 병사의 행군길을 끝까지 함께 가자고 고무하는 전우들의 뜨거운 손길을 안으며 그는 속삭였다.
(알아나, 전우들이여, 내 이 수첩의 노래만을 부르지 않으려니 돌격전의 나팔로 높이 울릴 내 삶의 노래를 이 수첩에 계속하여 적으리라.)
남다른 지향과 포부를 안은 어제날 병사의 발걸음은 험했다.
집에 돌아오는 조광원동무는 여러 영예군인들과 함께 영생담장설장과 안주지구관광협회개업, 천리마제강관기업소를 비롯한 50여개의 공작, 기업소와 건설장, 협동농장들에 나가 노래도 부르고 축흥시도 읊으면서 기계제동을 힘껏기 뿜었다.
몸은 비록 상하였어도 뜻이 높고 혁명적 열정에 불타는 그에게 끌리어 훌륭한 처녀가 한쌍의 길동무가 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 가정에는 꿀꿀한 두 아들이 태어났다.
가정에 행복이 꽃피기 때문에, 신상에 힘겨운 일이 부닥칠 때에도 조광원동무는 병사의 맹세를 가다듬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마음속깊이 거수 경례를 삼가 드렸다.
—군에게서는 최고사령관동지, 병사 조광원은 —군에게나 다진 맹세를 한생토록 지켜가겠습니다!

팔다리를 잃은 그때로부터 뜻이 이어진 그의 삶 20년.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병사의 행군길,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길이였다.
생각에 골몰하였다.
방마다 계속 쌓이는 당의 고마운 사랑과 은공은 그의 첫머리는 시창작의 원천이었다. 운신 못하는 특유영예군인과 함께 살면서도 항상 열광에 밝은 웃음을 함복 받고있는 6. 25전쟁의 공부 잘하고 의석한 우리들의 일거일동도 그의 습작대상으로 되었다. 하늘로 높이 나는 새들과 이비드들 공중에 즐겁게 노는 아이들에 대한 시구절도 여겨졌다.
하루는 그의 침대가구에 있는 창턱에 큼직한 쌍안경이 놓였다. 글감찾기에 온눈을 버치는 그를 보다못해 안해인 황영동무가 애써 구해온것이였다. 조광원동무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의 소재탐구반경은 그만큼 더 넓어졌다.
그는 한편한편 시를 써나갔다. 그 시들은 단순한 어휘들의 결합이 아니었다. 피와 살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시인들의 열애는 놓이던 맹렬한 평가가 가해졌다. 그것은 참된 요구성이었고 고마운 제책이였다.

수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를 위해 창작지도의 길을 걷는 세 시인에 대한 헌애는 그가 이렇게 물론적이였다.
《그것은 영예군인 한사람이 뭐라고 이토록 진정을 다합니까?》
그러자 시인들은 말하였다.
《우리 당에서는 일찌기 정연한 군중문학 창작지도체계를 세워주셨다. 문학적 지향하고 재능의 싸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애지중지 키우기 위해서요. 동무도 그 빛발속에 자라는 셈이지.》
조광원동무는 가슴이 뜨거웠다.
지금껏 그는 세 시인을 자기의 스승이라 불렀었다.
그의 오늘과 래일이 한없이 위대하고 고마운 스승인 우리 당의 손길이 활짝 꽃피고있음을 그가 어제 다 알수 있었었다.
조광원동무는 은혜로운 당의 손길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창작전투를 벌려나갔다. 어휘사전을 독파하고 장구한 인문역사의 갈고리칼과 파고들었으며 창작모리도 습득해나갔다. 신문과 텔레비전방송에서 전하는 하나의 새 소식도 그리고 자기의 귀중한 생활체험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런시 《인간사랑의 제단에 서서》, 서정시들인 《내가 잘 아는 사람》, 《푸른 잔디》, 《봄향기 넘치는》, 《고기메가 울려나다》를 비롯하여 많은 시작품들이 그런 과정에 태어났다.
시를 위해서라면 자기 한몸을 그대로 불덩어리마냥 활활 태우며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조광원동무.
불굴의 투지를 안고 하나의 시구절도 열변, 스무번 구슬같이 다듬으며 당에 대한 송가, 선군시대의 찬가를 엮어가는 그를 보면서 시인들은 주제혁명의 새시대를 소리높이 구가할 또 한명의 《김시진》이 태어나고있음을 확신하였다.
몇해전 어느날 창작지를 위하여 황해남도에 갔다든 조광원동무가 김평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상례는 위중하였다.
안해도 울고 그도 울었다. 안해는 남편의 생사가 걱정되어 울었고 조광원동무는 한창 열기가 시작하던 시창작의 나팔과 새 꽃피

우지 못한 아름다운 지향을 두고 가슴아파 울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던 세 시인도 아연해졌다.
(그의 생도 끝도 이렇게 끝나고마는가.)
이런 생각으로 시인들은 가슴이 저려왔다. 자기들이 지나친 요구성으로 영예군인의 명을 줄인것만 같아 죄스럽기도 하였다.
언제나 평안적이었던 시인들의 어깨가 축 처진것을 본 조광원동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에 대한 시인들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
그것은 다름아닌 당의 믿음, 조국의 기대였다.
뜨거운 그 사랑, 그 믿음이 그의 눈앞에 안겨왔다. 당에서 다가가 안겨주던 보약이며 가지가지의 생활용품들, 요람속의 갓난아기마냥 지성을 다해 보살펴준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그 시각도 당에서는 그의 병치료를 위한 조치를 최선을 다하여 취해주고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 한몸에 쌓여지고있는가. 그 사랑을 다 노래하지 못하고 내 어찌 침사리 죽을수 있단 말인가.)
조광원동무는 결사의 각오를 하고 치료전투에 나섰다. 고마운 어머니당을 위하여, 당에 삼가 드릴 찬가의 탄생을 위하여!

식사로법과 생활습생도 규칙대로 하면서 치료운동도 배합하여야 하였는데 그의 몸이 정상사람과 다른것으로 하여 의사들은 난감해하였다.
그것을 안 조광원동무는 말하였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침상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원발에 온몸의 무게를 싣고 입속으로 생세기를 해가며 땀흘려 현수를 하는 그를 보며 의사들은 눈물을 적시었다.
그의 강한 의지에도 병마는 머리를 수그러는듯 하였다.
몸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조광원동무는 병원침상에서 시작장에 달려들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병이 다시 악화될수 있다.

《백두여 그대가 나를 세웠다》

시는 곧 시인의 삶이다.
방방곡곡에 울려가는 조광원동무의 격동적인 삶이 시인들속에 소리치며 일떠서는 그의 삶을 본다.
그것은 아늑한 침상에 엎드리는 나약한 삶이 아니다. 시대의 벽한 흐름속에 뛰어들어 시대를 소리로높이 구가하며 천만의 심장을 꿰뚫어 겨우겨우 지키는 열렬한 시인, 찬란한 선구자의 격랑치는 삶이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 기쁨이 이 땅을 흐르듯이 적시는 선군시대의 새 불길인 백마-철산들에도 있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진길에서 제기발을 드시면서 마흔째주신 사랑의 꽃그릇, 경질유리그릇을 눈물겹게 품어안은 가정부인들속에도 있었다.
아침이 밝은 이슬에 발목을 적시며 수현지의 잔디를 비단털피마냥 스다듬는 성실한 상하수도관리공무원의 생활속에도 그는 있고 작은 가슴마다 터질듯한 긍지를 안고 붉은베라이 자랑스럽게 날리며 영광의 6. 25전쟁축대회장을 나선 소년단원들을 축하하여 애개성을 쌓은 아버지, 어머니들속에도 있었다.
이렇듯 몸은 비록 침상에 있을망정 시대의 슬픔을 누구보다 가슴적까지 안고 산 조광원동무이다.
몇해전 수도에서 멀지 않은 강서구역 수산이라는 수시구에 달하는 유례를 또다시 찾아내었다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그는 치솟는 분노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였다.
사색은 바라왔이 깊어갔다.
행복한 락원의 땅인데 오늘도 물쳐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늘생 오가는 공원길이나 아이들이 좋아라 뛰구는 잔디밭에 또 어떤 한많은 영혼들이 잠들어있지 않겠나.
원한이 사무된 신천향을 두고 어떤 시인은 맑고 다달 흥분도 분분없는 삶이 더 많은 땅이라고 했던만 생각해보지 못할것이다. 어떤 분분애조와 들지 못한 억울한 목숨들이 더 많은 이 땅은 정녕 무엇이었고 불리아 하는가.

...
지금껏 어떻게 찾아낸 유골은 얼마고 찾지 못한것은 또 얼마일까
분분에도 들지 못한 억울한 목숨들이 하나의 지층을 이룬 땅아
죄스럽구나
내 남마다 이 땅을 밟고 다니며 행복의 레일을 꿈꾸어온것이 이 피의 지층을 보고
누가 무심히 보습을 대어 씨를 뿌리며 아름다운 창조물의 기둥을 박으랴
...
이 땅에는 억울한 영혼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피의 지층, 계급의 지층이 있다는 것을 피라계 걸쭉한 시 《피의 지층》은 이렇게 태어났다.
이 시를 놓고 그와 세 시인이 마주앉았다.
《신천으로 가자!》
홍분애 찬내 심정은 이런 결정을 내리었다.
결기의 나무도 금방 꺾일듯 벗기던 전역이 아니라 원한이 붉은 피가 방울방울 흐를것만

다고, 그러면 생명을 담보할수 없다고 하는 의료인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저를 살리려거든 시를 쓰게 해주십시오. 시를 안 쓰면 나는 죽습니다.》
생사기로서도 계속된 조광원동무의 창작전투, 그것은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투쟁의 노래였다.
그 복부의 곁에는 세 시인의 진정도 뜨겁게 수놓아져있다.
작가로서의 본인일무도 수행해야 하는 그들이 조광원동무의 집을 찾는 날은 주로 일요일이었다.
그들이 창작지도를 시작한 초기에 안해들은 그들의 단란한 휴식을 뒤로 미루고 집을 나서서 남편들을 불러세우곤 하였다. 그러던 안해들이 몇해후부터는 오히려 남편들을 때릴었다. 《여보, 어서 가요. 영예군인이 침상에서 장박을 내다보며 기다려요.》라고 하며,
한 영예군인문학애호가들 찾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길을 걷는 박현철, 신문경, 리창식동무들.

10년전 그들이 조광원동무의 창작수업을 위해 바친 휴식일은 무려 350여일이 달랐다.
그런 과정을 거쳐 조광원동무는 수천편에 달하는 습작품을 썼으며 30여편의 작품을 출판물에 발표하였다.
결국 100편을 쓰고 그중 한편을 발표한 셈이다. 세 시인의 참되고 높은 요구성과 함께 조광원동무의 강한 의지력을 말해주는 수자이다.
조광원동무의 작품들가운데는 축정이기 단 한편도 없다. 누구나 읽고나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야말로 명사들이다. 그의 시가 나올 때마다 문학평론가들 들쭉하였으며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수첩에 적어넣었다.
지난 10월 9일 조광원동무는 조선작가동맹 회원증을 수여받았다.
고마운 스승, 위대한 어머니인 우리 당의 품속에서 그는 마침내 시인으로 자란것이다.

같은 신천땅의 곳곳을 돌아보며 조광원동무는 중요의 주먹을 불끈 틀어쥐었다.
시상이 빈척하고 비수같은 시어들이 번뜩였다.
승냥이 미제에 대한 불리는 중요물 한두편의 시로야 어찌 다 답답랴.
그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의 가슴팍을 향하여 전세대들이, 우리 시대의 총잡은 병사들이 다 퍼붓지 못한 복수의 총탄을 가슴울려내듯 피우는 심정으로 시조 《신천의 후련한 가을이 없었다》를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6월4일문학상이 수여되었다.
시조 《신천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의 매 작품들은 한결같이 착상이 새롭고 감정 또한 매우 절절하다.
조광원동무는 자기의 창작수첩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 시를 미제가 저지른 만행때로, 그것을 두고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심정때로 썼다.》
시문단에 그의 이름이 자주 오르고 한편 한편 그의 이름으로 된 시들이 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용암마냥 불타고있었다.
백두산!
백두산에 오르고싶었다. 틀어진 붓대를 천지의 물에 적서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터치고싶었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가고가다 쓰러진다 해도 끝까지 가야 할 백두산으로의 길!
선군조선의 진정한 시인이 되려면 우리 혁명의 뿌리가 시작되고 우리 당의 혁명전풍이 마려던 백두산에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자자구구 가슴에 새기고 불타오른 그 절절한 심정을 당에서는 세기이 헤아려주었다.
특유영예군인 조광원의 4명이라고 조야 박은 답사원이 그에게 전달된것이다.
우리 당은 새로 태어나는 선군시대의 영예군인시인을 위하여 따사로온 손길을 펼쳐주었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웅근한 자태, 천변만화한 모습때로 그를 맞이하였다.

조광원동무일행이 탄 빠스가 장군봉에 다달았을 때였다.
갑자기 세찬 폭풍이 휘몰아치며 비가 쏟아져내렸다. 그것은 어느듯 우박으로 변하였다. 그가 특유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고 최상의 편의를 도모해주던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 일군들과 감사들은 날씨도 험한데 장군봉에 오르르르만은 그만두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조광원동무는 백두산이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데 장군봉

에 오르지 않고 가면 한생 한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동행한 시인들과 안해에게 어서 가자고 하였다.
삼촌차는 한치한치 장군봉으로 올랐다. 앞에서 두명이 끌고 뒤에서 두명이 밀었으나 길의 경사가도 급하고 부석들에 비위가 박혀 잘 나가지 않았다.
조광원동무는 속이 타들었다.
백두산의 거봉으로 단숨에 뛰어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던 그가 별책 일어섰다.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의족한 두드리로 승풍 걸음을 내짚은 그는 원수에 들었던 지팡이마저 내던졌다. 그리고는 고고성당만 이- 하고 요란한 탄성을 지르며 앞으로 마구 달려나갔다.
지금껏 의족한 다리도 걸여본적이 없는 그의 이 뜻밖의 행태에 안해도 시인들도 모두 얼이 나가는듯싶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그가 어느새 수심M앞까지 달려나간 뒤였다.
백두산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켰던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장군봉에 올랐다. 수려한 조국의 산발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군봉마루에 서니 구름마저 발밑에 감겨들었다.
(백두산아, 내가 왔다. 혁명의 성산을 보지 못하고서야 내 어찌 진정한 시인이 될수 있으랴.)
조광원동무의 두볼로 뜨거웠것이 흘러내렸다.

...
집문턱을 한번 나서도 이 몸을 부축해낸 벗들이아 오늘도 비껴서다오 폭풍이 불고 우박이 날리는 이 산정에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선다
여기선 나를 휘감던 그 모든 병마가 세찬 바람에 산산이 부서져 날려가고 되고 신 이름없는 바위조차도 두번다시 설수 없었다 이 몸을 산악같이 일으켜세우나니
생생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백두의 행군길을 웃으며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그 정신 오늘도 우리앞에 혁혁한 그분들의 자욱 자욱이 이 몸을 역력같이 받들어주는 혁명의 성산

보여주고싶구나
병사시절 전우들에게 백두산에 오른 나의 모습 이 가슴에 차오르는 불사조의 정신 다시 일어서는 억세인 나의 새삶을
...
살리라
원수님 따르는 나의 평범한 삶에도 백두의 높이가 그대로 비껴가 원수님 받드는 나의 총정에도 티없이 푸르른 천지의 맑음이 그대로
어리게

오, 내 한생 언제나 백두의 품속을 안고 살리라 백두산, 백두산 어머니성산이여 그대가 나를 일으켜세웠다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선군시대의 불굴의 시인으로 자라난 조광원동무는 오늘도 자기의 인생길에 걸음을 쫓아오른다.
시인이 되기 전에 혁명가가 되자! 백두의 품까지 마음껏 짓고 백두의 눈보라를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아살로 간직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참된 혁명가가 되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백두산에 오른다.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을 간직한 신념의 산악 백두산은 그의 삶의 굳건한 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사상에 솔직으로 우수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있는 조광원동무를 온 나라가 다 알고들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공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의 창작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인 박현철, 신문경, 리창식동무들의 소행도 깊이 헤아려주시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불굴의 시인 조광원동무.
그는 오늘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전초선에 선 긍지를 안고 당한 김정은시대를 소리높이 구가하며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글 쓴사람 김 일 롱
사진 쓴사람 허 명 석
사진 쓴사람 전 성 남



김정숙영양제사공장에서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리는 조광원동무

《인권옹호》를 떠드는 미국의 흥심을 폭로한다

인류가 대대손손 살고있는 이 행성에는 200여개의 나라와 지역이 있다. 술나 나라들이 인권에 대해 제가금 많고있지만 그중에서 두 나라를 《인권옹호》에 대해 목 리지게 웨쳐대는 나라가 있다.

《인권재판관》으로 지쳐하는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는 그 리고 어느 국제기구도 부여하지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해마다 판에 박힌 《인권옹호》를 하면서 상부차별 뒤쳐지 러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일일이 헐뜯고 이베라지베라 훈시질하곤 한다.

가만은 미정관계에서 미국만큼 《인권보 장》을 위해 애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 다고 자화자찬하고있었다. 말하자면 미국 은 《인권보장국》, 《인권투사》로서 다른 나 라들의 인권문제를 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낮가죽이 폼발바닥같다고 하지 않 을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은 신성한 인권 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더우기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시야야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

미국에서만큼 인권이 무량히 유린당하는 인권불모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래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생명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은 미국의 인권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다.

인권보장의 주요성표인 선거권 놓고보면 그것은 독재정체들이 권력변동을 위해 돈을 뿌리며 벌리는 투기적인 정치유희공 간에 불과하다. 범람하는 종교문화를 의해 신성한 교정이 처벌된 살인마당, 인간소외 장으로 전변되고 온 사회에 원시림속에서 나 찾아볼수 있는 살기찬 약육사육의 생존 법칙이 그대로 흐르고있는것이 바로 감출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한가지 이유로 어찌 구니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나라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과거는 그만두고서라도 올 해에 흑인살해사건들이 연속 일어나고있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의 인권현편이

어떠한가를 똑바로 알수 있다.

보다 엄중했으면 《자유의 천국》이라고 하 는 미국에서 경찰당국이 연막판과 최루탄을 쏘아대고 지어 자동총과 갑갑차 등 중무기 들까지 동원하여 인종차별만행에 격분하여 떨쳐나선 흑인들의 대중적시위를 무참하게 진압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흑인 대통령인 선출된 뒤 인종차별을 깨끗이 청 산한 《인권의 표본국가》로 된것처럼 오시대 는 미국사회의 놀라는 실지조수이다.

하지만 오바마도 대통령을 그만두면 백 인들의 총에 맞아 죽을수 있다는 항진의 목 소리를 들어보면 놀랄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바마는 흑인인종차별정책을 가리우 기 위해 미국정치의 진렬장에 가져다놓은 가련한 장식용인형에 불과하다.

미국은 220만명에 달하는 범죄자들을 감금하고있는 범죄초대국이고 한주일에 평 균 3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을 새로 등록하 고있는 세계 최대의 실업대군보유국이며 1%밖에 안되는 최부유층이 99%의 국민 의 피담을 빨아먹으며 사는 부익부, 빈익빈 이 극도에 이른 사람 못살 인간정체국이다.

미국에서 인권은 곧 금권이다. 따라서 돈 있는자들은 미국을 인권의 천당처럼 생각 할지 몰라도 돈이 없고 권세없는 광범한 중 로대중이 인권을 누리겠다는것은 하늘에 높이 뜬 고구몽등을 잡아보겠다는것만큼이나 어려움은 천으로 되고있다.

허위와 기만에 찌들대로 찌들고 사회가 썩 을대로 썩은 미국이 제 더러운 몸짓을 지 나가는 악취는 향내처럼 묘사하고 남을 흥보 는것이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기대로 양 천대수족회 회비국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너털하고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 해 국제적으로 령거하자면 끝이 없다.

우리는 수다한 인권허물을 안고있는 미 국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게 《인권재판관》 처럼 늘어대는 흉심이 무엇인가를 온 세계 앞에, 인류앞에 다시금 똑똑히 폭로한다.

《인권옹호》를 남달라 떠들어대지 않고서 는 생존을 유지할수도, 번영을 이룩할수도 없는것이 미국이다.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상을 주어 지배층과 반인민적 사회제도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과 반항심을 자극해보자는 목적이였다. 그래서 대대 《연례인권보고서》발표놀음을 벌려놓고 더러 운 침방울을 튀기며 남을 헐뜯고있는것이다.

미국 《인권문》은 본질에 있어서 제도 붕괴, 침략론이고 세계제패론이다.

침략과 약탈을 떠나서, 세계제패야망을 포기하고서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는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의 내부모순 을 조장시켜 제국주의와 정권교체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하고 그 나라들을 혼란과 내 전의 악순환속에서 빠뜨리는것을 품을 적대 들이 세계제패전략을 달성할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으로 보고있다.

그 실행수단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을 최대로 부각시키고 그 《해결 처방》을 제추는것이다.

오래전에 미국학자 로렌스 쇼프가 《미국 의 인권외교의 목표는 사회주의나라의 이 단사들을 교묘하게는데 있다.》라고 물었으 로 되풀이되고 이진 미국인권문제담당 국무 차관보 에이브람스가 《인권외교는 민심을 정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나팔을 불은것 은 《인권옹호》를 실시없이 부러짓는 미국의 겉 은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 여주고있다.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에스빠냐공 민전쟁기 이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을 지 휘한 파쇼도이힐란드군 사령관이 자기는 수도 마드리드를 공격하는 4개의 전투사 령에 의 시내의 파쇼분자들로 무어진 《5월》을 가지고있다고 말한바 있다. 오 늘 미국은 《인권옹호》와 《민주화옹호》타령 을 쫓으며 술한 나라들에 친미분자들로 육 성된 《5월》을 형성해놓고있다.

미국의 《인권옹호》타령이 먹어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미국에 환심을 가지고 그가 먼저주는 훈돈을 받아먹으며 사는 주구들, 친미세력이 쫓겨지고 그들에 의해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적혼란이 조성되곤 한다. 라

미국은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의 내부모순 을 조장시켜 제국주의와 정권교체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하고 그 나라들을 혼란과 내 전의 악순환속에서 빠뜨리는것을 품을 적대 들이 세계제패전략을 달성할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으로 보고있다.

그 실행수단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을 최대로 부각시키고 그 《해결 처방》을 제추는것이다.

오래전에 미국학자 로렌스 쇼프가 《미국 의 인권외교의 목표는 사회주의나라의 이 단사들을 교묘하게는데 있다.》라고 물었으 로 되풀이되고 이진 미국인권문제담당 국무 차관보 에이브람스가 《인권외교는 민심을 정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나팔을 불은것 은 《인권옹호》를 실시없이 부러짓는 미국의 겉 은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 여주고있다.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에스빠냐공 민전쟁기 이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을 지 휘한 파쇼도이힐란드군 사령관이 자기는 수도 마드리드를 공격하는 4개의 전투사 령에 의 시내의 파쇼분자들로 무어진 《5월》을 가지고있다고 말한바 있다. 오 늘 미국은 《인권옹호》와 《민주화옹호》타령 을 쫓으며 술한 나라들에 친미분자들로 육 성된 《5월》을 형성해놓고있다.

미국의 《인권옹호》타령이 먹어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미국에 환심을 가지고 그가 먼저주는 훈돈을 받아먹으며 사는 주구들, 친미세력이 쫓겨지고 그들에 의해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적혼란이 조성되곤 한다. 라

로 씨 야 대통령 미국의 부당한 대외정책 규탄

로씨야 대통령 올라지미르 푸틴이 최근 쓰지에서 진행된 제 11차 《탈리아》국제토론회를 주관하며 공개대담회에서 미국의 부당한 대외정책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 정치전문가들이 발언하면서 그는 얼마전 유엔연단에서 로씨 야를 세계의 《위협》으로 묘사한 미국집권자 오바마의 발언을 비난하고 《세계지도자》로 자처하 는 미국은 자기를 뺀것에서 《승자》로 간주하며 세계에 군 립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워싱턴이 국제법규정을 정 지적목적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레오와 극단주의를 반대 하여 투쟁할 립장 전명

이란대통령 하만 루하니가 10월 27일 한의 외무성에서 레 오와 극단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투쟁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 명하였다.

그는 레오와 극단주의는 그 어떤 전명보다도 더 위험한것 이라고 하면서 지역나라들에 그 것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라이 안전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국방력강화 노력
인디아가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었고 있다. 최근 이 나라 국방성 은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갖춘 6 척의 잠수함을 새로 건조할 계획 을 발표하였다. 세계는 나라의 해군무력강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방공공격력 무기 개발, 초강생산 증대
인전에서 최근 자체로 개발한 방공공격력 무기 《아라》를 공 개하였다. 어깨용 율러놓고 사 격하는 이 무기는 무게가 18-20kg이고 길이는 180cm이 며 2000-2000m의 상공에서 비행하는 직속기를 조준격파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란에서 올해 들어와 첫 9개월동안에 총생산량이 1206만톤에 달하 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6.59% 증대된것이라 한다. 10월 26일 이라나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공군 무력강화 와 육 구 발전 노력
브라질에서 최근 자체의 힘으 로 첫 대형군용수송기를 제작하 여 공개하였다. 시험과정을 거 쳐 2016년초에 공군에 취용하 사 될 이 수송기는 군인 및 화 물수송과 공중유급, 수색 및 구 조작업 등 여러 전투업무들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브라질이 최근 나라의 육 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 였다. 계획에 따라 15개의 육 구 혼련소가 새로 건설되게 되며 마 혼련소에서는 약 720명의 나이린 선수들이 전문교육을 받 게 된다. 혼련소에서 양성된 선수들은 나라의 육 구 발전에 뭉 할것이라고 한다.

도로 개건 계획
캄보디아에서 도로 도로들을 개 건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계획 에 따라 나라의 9개 주들에서 총 연장길이가 729km에 달하는 도 로들에 대한 포괄적인 진행도 록 된다. 정부에서 이에 많은 자 금을 들이기로 하였다.

투쟁으로 쟁취한 혁명승리

민족적단합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알제리인 민이 해마다 뜻깊게 기념하는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알제리 혁명시기(국경절)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54년 11월 1일 알제리 인민은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무장투쟁의 첫 불꽃을 켜주었다. 알제리인민과 민족 해방군은 다년간의 줄기찬 투쟁 으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민족 해방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쟁취 하였다. 무장투쟁의 첫 총성을 울린 날이 있었기에 알제리인 민은 130여년간의 식민지통 치를 끝장내고 자주적발전의 길 에 들어설수 있었다.

1962년 7월 나라의 독립 을 이룩한 알제리인민은 9월에

에블라비루스 감염증 방지 노력

수단에서 최근 에블라비루 스감염증에 의한 폐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국 경지역에서의 검역사업에 특 별한 투자를 들이면서 5개 지역 에 에블라비루스감염증들을 새 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더 많은 의료진원들을 양성함으 로써 비루스감염자를 제때에 찾 아내어 치료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10월 27일 이 나 라 보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르단대외부가 최근 에블라 비루스감염증이 전파된 나라들 에서 오는 령행자들이 입국하 기에 앞서 3주일동안 매일 보 건당국에 자기의 건강상태에 대해 통보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나라 보건상은 이 조치가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한것이며 에블라비루스감염 증을 조기에 적발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모리타니에서는 말리에 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와의 국경지역에 있는 모든 초소들을 차단하는 등 긴급대책들을 세우고있다.

기니정부도 10월 27일 을 해말까지 국내에서 에블라비루 스감염증의 전파를 막을것을 목 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에 대한 사 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한 위생선 전사업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경지역들에 88개의 이송치료센터들이 꾸러지고 감 염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이 진행 될것이라고 한다.



인도 네 시 아 의 차 밭

미 래 가 없 는 암 흑 사 회

사회적 진보발전은 그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상태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자본 주의사회의에서는 변태적이며 퇴폐적인 생활조건 가 만연하여 사람들의 사 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인 간성을 말살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잃고 비판과 질망에 빠져 타락 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살 인과 강도 등 각종 범죄 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있 다. 범죄로 한해가 시작 되어 범죄로 막을 내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어 는 하루도 마음편할 날을 기대할수 없다. 특히 범죄 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올헤비두부 터 도에서 총기류범죄 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속 에 몰아넣었다.

지난 1월 4일 텍사 스주 휴스턴에서 정 체 불명의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1명이 살해 되고 2명이 부상, 13일 플로 리다주에서 한 영화관에서 범죄자가 영화를 관람하던 사람 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여 2명

군축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세계도처에 제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 기질이 널리 퍼져있다. 침략과 약탈의 원흉인 미국은 국내외 에 3000여개의 침략기지과 군사보 급기지를 두고있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 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커다란 위 협을 주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 의자들은 《군축》과 《화화》의 막뒤에서 구대 령상륙무기들이 집중되어있으며 수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있다. 최근에도 미 국은 《북조선의 핵과 란도미사일위협》에 공음으로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 과 미국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 고 회색화되었다. 이미 미국은 우리 의 《핵과 란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 는 구실밑에 핵전략계획인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미군을 만들어내어 작전 개입으로 정립시켜놓았다.

미국과 남조선이 올해 봄에 강행한 《기 리올》, 《두쿠리》합동군사연습에 바 로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었다. 그런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에 대한 작전 계획적화회를 보다 구체화하는 새 작전계획 을 세우려 하고있다. 새 작전계획이 어 면 전투력을 넘어서 두루 수립되고있는가 를 보면 그것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는 1000km에 달하는 잠 거리를 가진 OX-맨드메이커를 핵miss 로 하는 고고도미사일발사체계 《스드》, 지 상상시침전정찰기, 군사정찰위성 등 미 국이 보유하고있는 첨단전투수단들이 다 들어있다.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는 완회되지 못하고있으며 이곳에서는 항시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전쟁위험을 제거 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군축의 근본목적이 있다.

많은 전쟁위험이 가장 많은 곳은 조선 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이다. 령강 들과 유엔의 개입으로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을 띠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보장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와 직결되어있다.

조선반도정세를 긴장화시키며 평화 를 파괴유린하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평 분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곳에는 미국의 방대한 핵무기들과 대 령상륙무기들이 집중되어있으며 수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있다. 최근에도 미 국은 《북조선의 핵과 란도미사일위협》에 공음으로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 과 미국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 고 회색화되었다. 이미 미국은 우리 의 《핵과 란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 는 구실밑에 핵전략계획인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미군을 만들어내어 작전 개입으로 정립시켜놓았다.

미국과 남조선이 올해 봄에 강행한 《기 리올》, 《두쿠리》합동군사연습에 바 로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되었다. 그런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에 대한 작전 계획적화회를 보다 구체화하는 새 작전계획 을 세우려 하고있다. 새 작전계획이 어 면 전투력을 넘어서 두루 수립되고있는가 를 보면 그것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는 1000km에 달하는 잠 거리를 가진 OX-맨드메이커를 핵miss 로 하는 고고도미사일발사체계 《스드》, 지 상상시침전정찰기, 군사정찰위성 등 미 국이 보유하고있는 첨단전투수단들이 다 들어있다.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는 완회되지 못하고있으며 이곳에서는 항시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전쟁위험을 제거 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군축의 근본목적은 있다.

많은 전쟁위험이 가장 많은 곳은 조선 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이다. 령강 들과 유엔의 개입으로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을 띠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보장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와 직결되어있다.

이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을 핵 무기로 선제공격하기 위한 시도들이 로 풀려나고있다. 지구를 열백번도 겹수 는 핵무기들이 비축되고 그 질적개선이 추진되고있는 조선이 비핵국가들이 핵 무기전파금지조약을 체결할수 있는 요구하 는 주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수 없다. 현실은 핵군축을 위한 행동조치들 을 실제적으로 취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핵군축은 세계적일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당면하여 핵 무기사용의 완전금지 및 비핵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담보제공을 위 한 구속력있는 국제법적문서가 속히 마련 되어야 한다.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할 때 비로소 핵 무기사용과 그 사용의존은 물론 전파방 지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전면적수위확보를 위한 핵군축이나 일방적인 핵억제력포기구조로는 핵군축 에서 아무런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

핵군축을 실현하는데서 세계최초의 핵 무기사용국이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

핵무기를 가지고 마음먹는데대로 행동 할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트리거 태성 허용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비핵국가들을 핵억제력부유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될것이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반전평화옹호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한다.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행동을 짓부셔하기 위한 중요고리로서 진행된 지역 및 세계적일 군축활동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합세 해나갈것이다.

라 명 성